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의 차이점

| 에스더 히스 & 제리 히스 | 박행국 옮김 | 조한근 감수 |

스스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 원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일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제리 : 소년시절에 우리 집은 오클라호마 주, 미주리 주, 아칸소 주로 이사를 다녔는데, 5만 평정도 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딸기 따기, 닭 치기, 토마토 재배, 장작 패기 등의 일과 그것들의 판매를 통해 당시로서는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지요. 그후 뉴올리언스에서의 고교 시절에도 별로 재미없는 일을 했는데, 지붕수리공, 철공, 엘리베이터 운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재미를 느꼈습니다.

나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을 좋아했지만,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고 힘든 일을 하던 시절, 일과가 끝난 후에는 그래도 재미있는 일을 했지요. 밤에 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기타를 쳤습니다. 교회와 오페라단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곡예단 클럽을 만들어서 곡예 공연도 했습니다. 체조와 무용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즐겁고 재미나는 일들을 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즐겁지 않은 일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을 했지만, 재미를 위한 일들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그런 일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음악교육을 받거나 춤이나 곡예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고 또 그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공 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하는 바람에 일을 쉬고 있는데, YMCA 체육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쿠바의 한 서커스단에 참가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공중 그네 타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붕수리공과 철공

이라는 ‘안전한’ 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그 일을 계속하길 바랐습니다. 나는 그 일을 아주 싫어하기는 했지만 그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또 아주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노조의 파업 때문에 나는 쉽게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가슴 설레는 체험이면서 수입도 되는 진실로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쿠바의 서커스단에서 곡예사 역할을 시작으로 20여 년 이상을 쇼 비즈니스업계에 종사하게 되었지요.

아브라함 : 당신의 인생 경험은 우리가 여기서 제공했던 것들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힘들고 즐겁지 않은 일들은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침대 때 즐겁지 않은 노동을 하기는 했지만, 당신은 많은 시간을 진정 즐기는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유쾌한 창조를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던 겁니다. 힘들었던 노동은 당신에게 요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고 운동을 하며 좋아하는 것들을 했던 시간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허용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저항이 최소한으로 적어지게 되었을 때,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자유, 성장, 기쁨을 얻는 확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년 시절에 힘든 노동을 통해 극도로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걸 스스로 허용하게 된 아주 보기 드문 사람 중의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용은

당신이 소망해 왔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길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해야 할 일’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돈이 아주 힘들게 들어오고, 보통 충분치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좋은 생각들로 이루어진 길을 따라갈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면, 그 길이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들로 자신을 안내해 줄 은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을 찾게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우주는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줄 실행 가능한 온갖 수단들을 반드시 제공하게 됩니다. (끝) 

- 이 글은 『머니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에스더 히кс & 제리 히кс**(Esther Hicks & Jerry Hicks) | 1986년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정기 워크숍을 통해 건강, 풍요, 인간관계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해왔다. 자신들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들로부터 전해지는 명료한 메시지들의 탁월함에 감탄한 히кс 부부는 자신들이 삶에서 직접 체험한 놀라운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 메시지들을 수십 년 동안 세상과 나누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으며, 웨인 다이어, 루이스 헤이, 잭 캔 드, 존 그레이 등 저명한 자기계발 및 영성 전문가들로부터도(베스트셀러 작가 및 의식계발 교사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를 받아오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해 전 세계적으로 ‘시크릿(THE SECRET)’ 열풍을 일으켰던 ‘론다 번’도 이들의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에 참가해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인생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인 답을 주는 아브라함 메시지의 실용성에 고무된 에스더와 제리는 이 지혜들을 더욱 폭넓게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들은 20여 년간 총 600종이 넘는 각종 도서, 오디오, 비디오 등을 세상에 선물했으며, <의식적 창조과학>이라는 계간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오고 있다. 또한 매년 60여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허용의 기술 워크숍>과 <끌어당김의 법칙 대양 크루즈 워크숍>을 진행해오고 있다. '아브라함-릭스(ABRAHAM-HICKS)'라는 공식 명칭으로 출판된 저작물들 중 국내에 소개된 것들로는 『끌어당김의 힘』, 『당신의 모든 소망을 실현시켜줄 마법의 열쇠』, 『행복창조의 비밀』, 『뉴비기닝』, 『나에게는 이미 큰 힘이 있다』, 『사라1,2,3』, 『기본 좋게 살아가라』 등이 있다.

역자 | **박행국** | 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주)선경(현 SK네트웍스)에서 15년간 재직. 퇴사 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명상수련 및 자기계발 분야를 탐구해왔으며, 정신적 풍요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룬 삶을 추구하며 영성관련 번역작업을 해오고 있다. 역서로는 『행복창조의 비밀(2008)』, 『끌어당김의 힘(2010)』이 있다.

추천도서 | 마음에 닿은 책 | Good Book

머니룰 - 68의 기적

저자 에스더 Hicks, 제리 Hicks | 역자 박행국 | 감수 조한근 |

출판사 나비랑북스 | 정가 14,800원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주는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머니룰(Money Rule)』. 우리의 소망하는 풍요, 건강, 행복을 삶 속에서 누리도록 촉구하는 전략들을 담은 책이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질 것을 제안하며, 우리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큰 그림과 실제적인 세부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법에 대하여 이 책은 명료함과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해주고, 삶의 어떠한 측면일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 준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어떻게 변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지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